

제 81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인터넷을 통해 본 한일관계

정구종

동아닷컴 대표이사 사장

인조이재팬 등을 필두로 하여 한일 양국을 이어주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드라마, 패션 등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곤 한다. 한편, 한일 역사나 영토문제에 관련한 공방이나 상호비난도 이들 사이트나 여러 블로그 등에서 벌어진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투표도 역사적인 문제를 둘러싼 것들이 종종 있으며, 이것의 대표성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이러한 Net-nationalism 이 세계적으로 global 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간 교류나 외교에까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의 역사기획시리즈 등의 예와 같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공유와 인식의 공유는 양국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일보-런민일보-아사히신문이 공통의 테마를 걸고 콘텐츠의 상호교환, 3 개국 네티즌의 공동참여, 3 개국 독자에 대한 공동서비스 개시 등은 3 개국 시민레벨의 대화의 장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역사화해를 위한 미디어 특히 인터넷의 역할을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3 개국어로 되어 있는 공통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영어버전도 추가하여 다른 국가들도 참가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한 동일한 테마를 두고서 한중일 및 미국이나 유럽 등의 다른 나라들의 학자, 연구자, 저널리스트 등의 공동연구의 결과를 전세계에 발신할 수도 있다.

<Q&A>

Q. 동아닷컴 메인 페이지 설정 기준은?

A. 동아닷컴의 정체성은 보수적이며, 여기에 liberal 한 면이 약간 가미되었다.

Q. 한중일 네티즌 통합 사이트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특히 중국어의 번역의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나?

A. 일본어는 일본전문그룹에 중국어는 동북지방으로 보내어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시간이나 비용문제가 있으므로, 자동번역기를 써야 할지 사람을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

Q. 인터넷 토론의 특성상 강경파만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중간 의견의 확보가 어려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인터넷 토론의 장이 강경파의 득세와 자극적인 면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오해가 있던 것이 풀릴 수도 있고, 서로간의 접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Q. 한중일 인터넷 통합 사이트 등의 스폰서 문제는?

A. EU의 기금처럼 정치색이 없는, 한중일 기금을 만들어 출현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

Q. 강연중에 혐한, 반일 사이트 등을 언급하였는데, 일본 네티즌들이 일본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표성은 어느 정도인가?

A. 인터넷의 접근성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떨어지므로 한국에 비해 대표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도 인터넷 네티즌이 전체사회의 대표성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Q. 3월 1 일이나 8월 15 일에 인터넷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역사적 피해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인들은 직설법을 좋아하고, 이를 미디어가 증폭시키는 면도 있다고 하겠다. 신중한 미디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